

올해로 중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러나 오랜 분단으로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이해와 방향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분단국가"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지금도 우리는 전시 상황이다. 이에 현재 북한의 실태와 상황을 진단, 북한을 바로 이해하여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분단을 넘어서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올해로 6.25 종전 60주년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통일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북한 선교의 특수성,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의 내용과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자료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일하면서 통일 문제를 다루었던 경험들, 북한과 회담을 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된 여러 사건들, 남북 대화를 위해 평양을 오가며 느낀 소감과 선교를 위해 중국에 다닌 경험담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드 섹션을 벌이고 있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여학생들의 전통무용, 남학생의 집단 체조에 이어 남자 2천 명이 인민군 복장으로 총검술을 하는데, 중간에 미군 복장을 한 사람들을 땅에 눕혀놓고 찌르는 동작을 했다. 이때 카드섹션과 음향 전광판에서 'ㄷ'과 'ㄷ' 글자를 새겼는데, 이는 "타도 미 제국주의"의 약자였다. "사회주의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원하리라! 김일성 수령님 만세 무궁화소서!"가 이어지고 군중들은 열광했다. 한마디로 김일성 우상화, 북한 체제 선전, 공산주의 체제 선전 등 정치선전 쇼였다.

설명했다. 많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이 사건으로 남북 대표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다. 호텔에 있던 북측 연락관마저 철수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북한이 화가 나서 남측 대표들을 인질로 삼으려 한다는 말까지 들렸다. 평양의 상황을 서울 본부에 알린 후, 새벽 한 시쯤 되어 호텔 방으로 들어가 잠옷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는데 누군가 내 트렁크를 뒤진 흔적이 있었다. 아마 공무원이 들어와 회담 서류를 훔쳐 보려 했던 모양이다. 다행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서류는 미리 옆방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맡겨 두었기에 문제는 없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10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놀라서 수화기를 드니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끊어졌다. 30분 후 또 전화기가 울려서 받으니 이번에도 그랬다. 이런 전화가 새벽 4시경까지 반복되었다. 이전 정말 자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을 열어 보니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뜬

총성 없는 전쟁

지난 1985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회담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을 때 일이다. 북한은 우리 대표들을 평양의 학생소년궁전이라는 곳으로 안내하더니 학생들의 울동과 체조를 관람시켰다. 관광버스를 타니 안내원이 참관일정이 바뀌었다면서 갑자기 모란봉 경기장으로 안내했다. 김일성, 김정은 등이 앉은 주석단석에 도착해서 보니 경기장에 약 10만 명이 운집해 있었고 정면으로 여고생 2천여 명이 카

남북대표가 방문할 때 자극하는 선전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는 합의서 위반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남한 측 대표는 일제히 일어나 10만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퇴장했다. 호텔에 돌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람 도중 경기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갑자기 모란봉 경기장으로 안내했다. 김일성, 김정은 등이 앉은 주석단석에 도착해서 보니 경기장에 약 10만 명이 운집해 있었고 정면으로 여고생 2천여 명이 카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플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생생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Facebook www.facebook.com/ohauscorp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정신이 몽롱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채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회담 시작까지 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컨디션으로는 회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모란봉 경기장 퇴장 사건으로 힘든 회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애송하는 성경구절인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며 회담에 임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회담이 시작되었다. 북한 측 이종울 수석대표는 자신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것을 남측 대표들이 무시했으니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좌우에 있던 북한 측 두 대표도 잇달아 말했다. 자기들 행사는 순수 체육문화행사인데 남측 대표들이 무례한 행위를 했다며 절대 용납 못한다고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종울 단장에게 북측은 발언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회담에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법인데, 시작하자마자 북측에서만 세 사람이 잇달아 발언권을 독점하면 이것이 무슨 회담이라고 따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 터이니, 간단히 대답해달라고 했다. 첫째 질문은 어제 모란봉 경기장의 매스게임은 누가 봐도 군사 매스게임이었고 우리는 적

십자회담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적십자의 기본 정신인 인도주의와 군사 매스게임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였다. 둘째 질문은 학생들의 전쟁 놀이와 이산가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였고, 세 번째는 행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우리를 모란봉 경기장으로 데려간 것은 사기 행각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이종울 대표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흥분해서 손짓을 해가며 “송 선생은 회담할 때 항상 반동적인 발언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신상에 안 좋아요. 두고 보시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협박을 했다. 그러자 우리 남한 측 다른 대표들도 따라서 들고 일어나 이수라장이 되면서 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회담이 결렬되어 판문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북측 부단장 서성철이 내 옆에 앉았다. “송 선생은 두 따님이 있다지요?” 하고 물었다. 또 “두 따님이 얼굴도 예쁘고 서울 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다지요?” 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족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물으니, “아, 그거야 초보 지식이지요.”라고 하는 것이다. 혹시나 가족을 위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남북대화란 것이 통상적인 국가 간 대화와 달리 총성 없는 전쟁이기에 대화에 과잉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즉 기독교와 주체사상 간의 영

적 싸움과도 같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라는 말씀처럼 항상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해야 한다.

불바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 1994년 3월에 판문점에서 남북특사 교환회담이 열렸을 당시 나는 우리 측 수석대표였다. 의제는 남북 두 정상이 직사를 교환하는데, 그 직사의 임무를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연락관이 북한 측 대표 박운수 단장에게 메모를 건네주었다. 메모를 본 박 단장은 서류 한 장을 빼어 들고, “송 선생, 이제 중대한 제안을 하겠소. 신중히 들어주시요.”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서류를 읽는 중에 “남측의 팀 스피릿 훈련은 북침 훈련이다. 남침이 핵문제로 국제 공조체제를 하는 것은 북측의 목을 조이는 것이니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처하겠다. 우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송 선생, 당신도 살아남을 것 같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소? 우리는 몇 배로 갚아줄 것이요. 불바다 발언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 이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지요?”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단장은 얼굴이 벌게지면서 답을 하지 못했다. 공식입장이라고 했다가는 전쟁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이 우습게 되기에 우물쭈물 하였다. 우리는 “할 말 다 했으니 나가겠다.”고 하며 회담장을 나와버림으로써 회담은 결렬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기도를 드렸다. 서울에 돌아와 어느 친구가 내 머리를 보더니 머리털이 그슬리지 않은 것을 보니 불바다에서 살아나온 사람 같지 않다는 농담을 던졌다. 그 후 불바다 발언이 뉴스에 나왔다. 당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강남 일대에서는 라면과 쌀을 사재기하기도 했고 적잖은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 또 재미교포들의 안부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내가 기자들에게 “짓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습 공격을 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공격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불바다 발언은 협박이니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국방부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이 정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무렵 북한은 휴전선 쪽에 240mm 방사포 140문을 배치했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포로 한 번

에 24발이 발사되는데 사정거리가 60-65km 정도니 서울 상공을 지나 수원까지 미친다. 특히 이 포탄은 미사일이 아니어서 패트리엇 방사포뿐 아니라 북한은 기타 포를 약 3000여 문 갖추고 있었는데, 이를 일제히 서울을 향해 1시간 동안 퍼부으면 서울의 1/3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게다가 포탄이 떨어져 LPG통, 도시가스 파이프, 주유소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참사가 벌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남한도 대응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우리도 북한의 방사포와 비슷한 다연장로켓을 휴전선에 배치해서 맞대응을 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평소에 방사포 진지 위치를 파악해서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시작하면, 즉각 F-15 전투기로 폭격하도록 작전계획을 짰다. 지난 2월 핵 실험에 성공한 이후 김정은은 100일 동안 전쟁 협박 쇼를 벌였다. 서울은 물론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국민들이 거의 동요하지 않았고, 외국 자본도 철수하지 않았다. 아마 지난번 불바다 발언으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다. 결국 북한의 불바다 발언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사랑의 원자탄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평양에 갔을 때 조선기독교연맹 간부가 안내원을 한 일이 있다. 조선기독교연맹은 북한이 자기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

다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만든 위장단체다. 그 조직의 간부인 조인덕 씨가 내가 3박4일 평양에 머무는 내내 함께했다. 대화 중 6.25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남조선이 미제와 짜고 벌인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소련 자료를 인용하며 남침전쟁이라고 설명했더니 계속 우겼다.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제를 돌려 조선기독교연맹에서 혹시 남한이나 해외의 기독교 서적을 구입해서 보는지 물었더니 자기들도 열심히 책을 구해서 읽어 본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가 물었다. 모른다가에 설명해 주었다.

손양원 목사의 삶, 즉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른 일, 여수·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청년을 살려내어 회개시키고 양아들로 삼은 일, 6.25 때 피난 가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다가 인민군에 사살된 일, 나병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낸 일 등을 설명해 주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조인덕 씨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물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우면 <사랑의 원자탄>이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있으니 사서 읽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 사납던 목소리가 친절해졌다. 그가 사색을 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튿날 평양 제일고등학교를 시찰하는데, 과학시간에 컴퓨터로 공부하는 모습이나 실내 수영장도 보여주었다. 일

행들보다 먼저 시찰을 끝내고 자동차로 오는데, 조인택 씨가 소감을 묻기에 생각보다 시설이 좋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거야 시범학교니까 그렇지요.”라며 웃었다. 그가 마음을 좀 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며 승용차로 판문점까지 왔는데, 헤어질 때 조인택 씨가 구석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일전에 들려준 이야기 잊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 눈에 선하다.

현재 북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 거기서 복음을 접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하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중국의 탈북자 중 약 10만 명 정도가 돌아갔고, 그중 3만명 정도가 복음을 접하고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북한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해에 평양 시내를 물론, 도시나 내륙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산간 오지로 강제이주시켰다. 그런데 1990년에 중국이 삼자교회를 허용해 주면서 이 동북 3

성에 조선족 교회가 설립되었다. 1991년 한중수교 이후 우리 선교사들이 이 동북 3성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결과, 조선족 교회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런데 1995년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다. 이 탈북자들의 2/3가 평안북도나 함경북도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이 중에는 1953년에 강제이주된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오자, 이미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과 조선족 교회가 힘을 합쳐 넘어온 탈북자들을 포용했다. 그들을 안내해서 쉼터라고 부르는 mission home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복음을 전했다.

여호와이레.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탈북사태를 미리 아시고 1990년부터 중국에 조선족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을 대기시키셨다가 이 탈북자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시켜두셨다.

1995년의 북한 지하교회 상황을 보면, 신앙 제1세대는 거의 사멸했고, 신앙 2-3세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 지하교회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탈북 성도가 돌아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이 신앙 2-3

세대에도 전달 되었다. 이때 그동안 처벌이 무서워서 자녀에게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했던 신앙 1세대 부모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온 자녀를 보고 “내가 전에 집사였다. 너의 할머니가 권사였다. 너의 아버지가 장로였다.” 고백하면서 온 가족이 부어안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결국 꺼져가는 불꽃 같았던 신앙의 명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6.25 전쟁 이후 2만2천 명으로 추정되던 북한 교인이 지금은 약 30-5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어서 다음 호에는 북한 지하교회의 실태와 북한의 상황을 다루도록 하겠다.)

애국자들

만원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장이 났다. 기장이 기내방송을 통해 몇 사람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죽는다 했다. 귀족의 임무(oblige noblesse)에 충실한 영국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며,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the queen!) 하고 뛰어내렸다. 다음에는 세계 최강국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인이 “미국, 그 아름다움이며”(America, the Beautiful!)를 외치면서 뛰어내렸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이 뒤질 수가 없었다. “프랑스 만세!(Vive la France!) 하면서 뛰어내렸다. 프랑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인도 체면을 세워야 했다. “모든 것 위에 독일!”(Deutschland über alles!) 하면서 뛰어내렸다. 그때 기장이 방송했다. “이제 딱 한 분만 더 내리시면 나머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Let my People Go)를 크게 외치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아랍인을 집어 밖으로 내던졌다.

